

인류세 시대 ESG경영의 신학적 전망

김세중 한림대 겸임교수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¹⁾
인류세에 들어와서야 우리는 땅(우주)의 기초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인류세 시대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멸종과 종말론의 실존적 위기를 맞아 대안으로 ESG경영이 부상하며, 우리의 우주론적 자각과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향이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비인간과 물질을 포함하는 새로운 우주관과 종말론적 신학을 개발하고 그 실천에 있어서 생태경제학적 입장에서 생산-소비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창세기 본문의 전망을 비인간을 포함하여 다시 검토하고 신-인간-우주의 삼중창조로 재해석하면서 그 근본적인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종말론적 우주관과 신학에 있어서는 존 호트를 참고하고 실천 대안으로서 생산-소비-처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거버넌스인 ESG경영의 차원을 넘어 생태경제학적 거버넌스로의 전향이 촉구된다. 초기단계의 관찰이지만 이를 실마리로 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축적해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ESG경영, 인류세, 종말론, 우주관, 생태경제학

1) 욥기38:4;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주시는 가운데 욥에게 물으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의 우주관을 점검하고 재정립하라”로 해석된다.

목차

- I. 들어가며
 - II. 성서 Text Review – 비인간을 포함한 창조원리의 재검토
 - III. 창세기원리의 회복을 위하여
 - IV. 근본적인 대안의 방향
 - 1) 과학과 종교를 포용하는 종말론적 신학과 우주관
 - 2) ESG를 넘어 생태경제학적 거버넌스의 정립
 - 3)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사례
 - V. 결론
- (Appendix) : 존 호트의 ‘예기적 독법’에 대한 보완

I. 들어가며

21세기 초 인류세²⁾ (Anthropocene) 개념이 제시되며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제 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를 통한 지구 시스템 변동과 자본주의적 성장의 상관관계 탐구가 진행되었다. 인류세라는 개념은 인류 자신이 만들어낸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과학기술 문명의 폐해로 인해 온난화, 재난, 종 파괴와 멸종 등 지구 ‘균열’ 상황은 물론이고, 급기야 지구 인간 생명 자체가 절멸에 도래했음을 알리는 진혼곡이다.³⁾

인류세라는 자연과학의 용어는 또한 매우 정치적이다. 지구상 생명체 모두에게 엄혹했던 빙하기를 지나 약 1만여 년 전부터 시작된 홀로세(Holocene)의 풍요롭고 자비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호모 사피엔스의 생태학적 과대성장이 낳은 참극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탈구축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⁴⁾ 인류세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국제지

2) 21세기 초의 현재 지질시대는 공식적으로 현재의 신생대인 4기 충적세에 속한다. 그러나 파울 크뤼천과 유진 스토머는 2000년에 지구 행성이 '인류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여, 이는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예술계, 언론, 대중문화 등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인구 증가, 대기 오염, 지구표면 변형 등이 새로운 시대로의 접어들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이광석, “인류세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테크노-생태학적 전망”, p24, “문화/과학”(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차태서(2021), “포스트 휴먼 시대행정정치:의 모색: 코로나19/기후변화 비상상태와 인류세의 정치, p34, <https://doi.org/10.15235/jir.2021.12.24.4.31>

질과학연맹 산하의 국제총서위원회(ICS)가 내릴 수 있다.⁵⁾

1987년에 출범한 국제과학협회의 지구생물권 국제공동연구계획(IGBP)은 지구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세계의 사회경제 및 지구 시스템의 자연환경 변화 지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5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24개의 지표가 1950년 전후로 급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지표는 기후변화로 수렴되어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멸종의 파국을 암시해주고 있다.

인류세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즉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나아가 지구 전체의 환경을 재구성하는 전환적 활동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접근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재고하는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다. 이 변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형성한 집약적 소비와 무한한 성장의 사회 구조 속에서 생태계의 파괴와 자원의 고갈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진보의 패러다임이 가져온 혜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인류세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된다. 생태학, 과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결합하고, 협력적인 다국적 접근을 통해 우리의 행성을 보전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인류세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사물까지 포함하는 미래에 대한 문제로, 전 우주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독교계에서는 우리의 종말론과 존재양식을 재점검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 생태신학의 관점에서 전체를 조망함이 요구된다.

II. 성서 Text Review 비인간을 포함한 창조원리의 재검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세기 1장1절~25절까지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하나님은 빛과 어둠 창조, 바다와 공중과 땅에서 모든 생물의 창조와 함께 이 모든 피조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다”(בְּרֵאשִׁית טוֹב מְאֹד)(창 1:31)고 말씀하신다.

טוֹב (*tûb*), 명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 번영, 행복, 복*. 헬라어 *가*

5) 과학계는 최근 인류세의 시작을 1950년 이후로 잡는 경향이 있다. 제목에서부터 얀 잘라시에비치가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에 앨라모고도에서 핵폭탄 폭발로 인류세가 시작된 것으로 주장한다. 인류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로 여긴다

6) K. Elliger, W. Rudolph와/Gérard E. Weil,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electronic ed.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03), 창 1:21.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הָאָרֶץ) 생물을(חַיָּוִת)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נִצְּאָה)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⁸⁾ (창1:24)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플랫폼 서번트로 봉사하고 있다. 비인간 물질인 땅과 대양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더 직접적으로 창조자의 성품을 이어받아 칭찬받는 결과들을 만들어 낸다.⁹⁾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고 마침내 만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을 명하시며 인간에게 특별한 명령을 더하신다.

“땅을 정복하라(הִשָּׁבֵת)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רָחַץ) 하시니라” (창1:28)

הִשָּׁבֵת subdue 칼 명령형 정복하다, 다스리다

שָׁבַת (kbs), 동사 짓밟다, 강요하다.¹⁰⁾ 정복하다

רָחַץ 다스리다

רָחַץ 1 (rdh 1), 동사 정복하다, 통치하다.¹¹⁾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자유의지적인 인간을 완전히 신뢰하신 하나님이 위험을 감수하고 내리신 명령으로 해석이 된다.

동물이 각각 그 종류와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로 인간은 땅과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생물을 다스릴 책임을 맡음으로써 창조의 머리로 지정되었다.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ICC Ge) 그 형상이 인간과 동물의 구별을 표시하므로 그에게 지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이 명령은 창세기 2장 15절과 함께 읽어야 할 본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עָבַד)하

7) Rick Brannan, 편집자, Lexham 히브리어 성경 어휘사전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8)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 전자책.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1998), 창 1:24.

9) Catherine Keller, 지구정치신학(박일준역), 2020, p151

10) Rick Brannan, 편집자, Lexham 히브리어 성경 어휘사전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11) Rick Brannan, 편집자, Lexham 히브리어 성경 어휘사전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12) John Skinner 1851-1925,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Scribner, 1910), 30. “in contrast to the lower animals, which are made each after its kind or type, man is made in the image of God; (c) man is designated as the head of creation by being charged with the rule of the earth and all the living creatures hitherto made”

며 지키게(שָׁמַרְתָּ) 하시고”¹³⁾(창 2:15)

חֹנֵן וְחַנּוּן 1 (*nwh 1*), 동사 정착하다, 쉬다¹⁴⁾ 히필 미완료 3ms

הִדְבַּעְתָּ 전치사+ 부정사 בָּדַד (‘*bd*), 동사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שָׁמַרְתָּ (‘*smh*), 동사 지키다, 두다, 행하다, 보호하다

어근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그의 세계(신-인간-생물-지구-우주)를 위한 경작하며 지킨다는 보호관리개발의 의미를 축소하고 “정복하라”(הִשָּׁבַח), ‘다스리라’(רָף)는 명령을 인간 자신들을 위한 통치의 특권으로 해석하였다. 켈러의 지적에 의하면 “땅을 착취하고 소유하라”¹⁵⁾로까지 오해하였던 것이다.

이후 인간은 모든 자연환경이 우호적이었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척박해진 땅과 생물, 비인간과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이 되었고, Stewardship(청지기)이 아닌 주인으로서 폭군으로서 사역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땅과 생물과의 평화적 공존이 아닌 적대 관계에서 착취의 지경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롬8:19)

이 고백은 인간의 자연과 사회의 역사 속에서 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심화되어 왔으며 결국 오늘날 인류세의 도래로 우리의 실패를 증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III. 창세기 원리의 회복을 위하여

인류세 개념은 종교적 종말론의 실존적 해석이 된다. 앞서 보았듯이 과학주의에 입각한 모든 자명한 증거들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 종교적인 종말론과 현실적인 종말의 날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빈부와 노소의 차별없이 파국을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인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현재 우리의 종말론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종말론은 단지 신앙을 준비시키는 전제가 아니라 엄연히 실재가 되었다. 기독교는 인류세 담론 이전에 이미 종말을 예견하고 그에 대해 신앙적인 준비를 해온 종교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종말이 없다는 듯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번영과 성장을 겨냥하고 살아왔다. 이를 교화해야 할 교회마저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종말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신학과 삶의 태도를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텍스트를

13)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 전자책.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1998), 창 2:15.

14) Rick Brannan, 편집자, Lexham 히브리어 성경 어휘사전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15) Catherine Keller, 지구정치신학(박일준역), 2020, p151

다시 진지하게 독해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바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라도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교회성장론이 아닌 종말론적 신앙관을 정립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듯이 살아야 할 것이다.

- 1) 먼저 인간으로서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신과 인간만이 존재하던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자리에 땅과 생물과 비인간, 사물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들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이제라도 실현해야 할 것이다.
- 2)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한 담론으로서 UN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경영(실행방법)으로 구체화되어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것은 뒤늦지만 창세기의 원리를 살피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세의 비극을 피할 수 없다면 보다 파격적인 실행 협의와 계획이 세워지도록 지구적인 협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ESG경영은 자본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자본 주도로 드라이브 되는 프랙티스이다.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과 신학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행동은 결국 학습과 이데올로기에서 결과된다. 신-인간-물질(우주)의 총체적인 우주관과 세계관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상 이것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실한 실패를 감행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한다.
- 4) 인류세 시대의 선교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실존적인 종말의 시대에 비그리스도인을 초청하여 종말의 비전을 공유하며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IV. 대안의 방향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 근본적인 대안의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상적 토대로서 비인간 존재를 담아내는 새로운 우주관과 종말론 신학의 발전과 자본주의 경제 거버넌스를 생태경제학적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1) 과학과 종교를 융합시키는 종말론적 우주관과 신학

먼저 인류세 시대의 신학과 신앙의 패러다임을 담아낼 종말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 바와 그 믿음의 체계적인 사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정과 사회, 국가에 한정된 근대적인 세계관, 신관을 탈피하여 신-인간-비인간-우주를 포함하는 진실로 원래 하나님의 스케일을 반영하는 신학과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근대적인 혁신의 패러다임에

간혀 우리의 실패는 반복될 것이고 결국 희망고문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통적 신학과 신앙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존 호트의 신학적 상상력은 인류 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된 우주관의 기반을 제시함으로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

1.1) “존 호트의 종말론에 함의된 과학·생태 신학적 상상력 연구”- 요약¹⁶⁾

인류세 시대의 신학에서 '우주'와 '물(thing, 物)'의 능동성과 행위주체성에 대한 과학적 사유가 중요해진다. 어떻게 비인간 존재와 행위주체성을 담아 낼 것인가? 이에 대해 종말론적 신학은 '예기(anticipation)'의 개념을 고찰하며, 종말론과 과학, 종말론과 종교의 상호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종말론적 신학은 과학과 생태 신학적 사유를 통합하고, 인간중심적인 생태신학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과학과 종교의 상관 관계를 인식하는 종말론적 신학은 신-인간-우주의 삼중창조를 제안한다.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의미를 찾는 가능성은, 당연히 우리가 과학적 발견들을 무시하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내부와 외부 모두, 즉 전체 이야기를 읽는 데 과학의 바닥(beneath)과 너머(beyond)로 갈 필요가 있다. 아마도 결국은, 외면적 이야기의 핵심은 내면적 이야기로 옮겨가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주의 깊은 독법은 결코 '옳음(rightness)'의 여명(dawning)에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우주의 내면적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다.

우주는 역동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주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인류세 시대는 사물과 우주를 우리의 사유 안에 포함해야 하므로 과학적 사유와 종교적 사유의 두가지를 동시에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예기는 예측 불가능한 여명을 오직 동시에 조망함으로써만 우주적 이야기의 내면을 본다. 그것은 기원학과 달리, 교조적이고 인내하지 못하여, 모든 것에 중심(의미)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안적인 유비 형태와는 달리, 그것은 의미를 '바깥'이 아니라 이야기 '안'에서 찾는다.

호트는 과학과 종교의 두 독법을 존중하며, 우주에 도래할 새로움(novelty)의 출현을 고대하는 새로운 독법을 '예기(anticipation)'이라 명명한다. 이 독법은 우주를 자유와 인격성을 꽃피우기로 약속된 미완의 드라마로 읽어낼 수 있으며 우주의 내면적 차원의 진-선-미가 구현되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예기적 독법에 의하면 진화는 생물

16) 박완석, “존 호트의 종말론에 함의된 과학·생태 신학적 상상력 연구”, 『기독교철학 36호』, 2023

의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 우주 전체가 새로움의 출현을 향한 진화의 과정 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예기적 독법은 과학의 '기원학'적 관점과 종교의 '유비'적 관점을 조화 보완시키는 일관성 있는 인류세 시대의 우주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기는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겸손한 기대의 입장을 나타낸다. 예기의 태도는 우리를 초대하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감사하게 만들며 긍정적 인내를 견지하게 한다. 히브리-기독교적 신앙이 신뢰하는 '약속의 성취' 혹은 '약속의 구현'으로 우주의 과정을 이해할 때 표면적 이해를 넘어 우주 안에 내재된 깊은 의미와 이야기를 포착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종말론적 신앙은 현대의 자연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과정 중의 우주가 지속적인 생명의 약동과 복잡성의 출현으로 새로움(novelty)과 아름다움(beauty)이 증진되고 있는 약속과 희망의 우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의진화적본성은성서가제시하고있는종말론적비전과부합하는우주론이다. 본래부터 성서는이미완성된우주가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미완의 우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말론적 우주는 신-인간-물질(우주)의 얽힘과 연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인간-우주적 창조 비전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우주가 결정론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전통적인 목적론과 달리, 미래의 지평은 언제나 개방적이며 잠재적이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인류는'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우주'의 거주자로서 지속적인 창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지엽적일 수밖에 없다. 호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영(the creative Spirit of God)의 바람은 그 영이 원하는 곳에서는 이곳 지구에서뿐 아니라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불고 있다. 이러한 '신-인간-우주적 비전'의 공동 창조성이 얽힘과 연대(아상블라주)는 인간만을 유일한 행위주체로 이해하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사유를 전복하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비인간 존재들의 존재역량이 부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실패의 위험, 개연성이 존재한다. 도나 해러웨이는 종말론적 우주는 '신-인간-물'의 상호 연대를 통한 '공-산(Sym-poiesis)의 차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호트가 수용하는 과정신학의 목적론적 우주도 '공-멸'을 향하기 보다는 '공-산'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전개되고 있다.

호트의 신학은 과학과 종교의 대화와 상호 배움의 필요성, 나아가 피조세계로서 우주의 능동성과 물의 행위 주체성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시대에 적절히 부합하는 종말론적 신앙과 우주론을 함의하고 있다. 더욱 더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 요청되는 인류세 포스트 휴먼 시대에 호트의 종말론적 신앙과 우주론은 현대의 융합적 사유를 충분히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신앙적인 논거를 시사하고 있다.

2) ESG를 넘어서는 생태경제학적 거버넌스의 정립

성서 텍스트를 통해 사상적인 기반을 검토하였으니 이제는 실제적인 생태경제적 대

안을 강구할 차례이다. 이제는 일상의 자본주의 경제의 거버넌스를 생태경제적인 거버넌스로 바꾸는 패러다임 스위프트가 필요하다. 이에 토대를 이루는 생태경제학은 전통 경제학과 달리 경제활동을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시장가격 분석에서 출발하지 않고 경제활동이 유발하는 물적 단위로서 '에너지와 물질 분석에서 출발한다. 이는 화폐가격 외에 에너지와 물질 사용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생태물리적 부담'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에너지와 물질 흐름'은 '자원흐름'으로서 시장경제가 자연생태계와 자원흐름으로 연결되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이 전통 경제학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생태계는 청정 무한 태양에너지를 쓰고 무한 반복적 사용이 가능한 순환형 방식인데 반해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경제계는 부존량이 제한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일회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 경제체계는 자연생태계와 충돌하는 방식이며 '고탄소 화석 에너지와 일회용 물질사용'이 엄청난 생산성을 창출하지만 자원고갈과 환경위기(지구온난화와 생물멸종)를 유발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진단에 대한 생태경제학의 처방은 고탄소 화석에너지 및 일회용 물질사용을 지구생태계의 수용범위 이내로 제한하면서 경제체제의 자원흐름을 저탄소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 일회용 물질사용을 순환형 물질사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류세 시대의 미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생 학문으로서 생태경제학의 이론적 기반과 데이터가 아직은 초기이지만 이미 앞서서 진화적 우주관이 미래의 새로운 창발을 향해 나아가듯이 경제사회과학도 이를 반영하여 Transformation 하여야 할 것이다. 생태경제학의 생태학 기반을 구축한 홀링은 '자연생태계의 안정적인 전환을 보장하는 복원력(resilience)은 바로 자연생태계의 생물종 다양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생태경제학은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Ecology, Ethics, Economics'라는 3E의 통합을 지향하는 거대한 21세기 프로젝트이다. 이는 45억년 역사의 자연생태계의 순환원리를 불과 200년 역사로 잠식해버린 20세기 경제학에 대한 냉철한 자기 반성이자 치열한 몸부림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산업생산물들의 생태계에 대한 부담을 측정하는 "생태배낭" 회계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¹⁷⁾

한편 경영학의 패러다임은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고 2011년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과 ISO26000(사회적책임의 국제표준) 개발로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으며¹⁸⁾ 근래에는 자본주도의 ESG

17) 조영탁, 『생태경제와 그린 뉴딜을 말하다』, p30, 보고서, 2021

18) 김세중, 박의범, 홀란, "한국기업 CSR활동의 공유가치창출에 관한 연구", 2012, 무역보험학회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경영으로 어느 기업이나 환경과 사회책임을 지는 경영방식의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역시 자본이 주도하다 보니 수익성의 한계에 이르면 **Anti-ESG** 운동이나, ESG의 가이드라인을 완화시키는 움직임 등 실행에 있어서 단점이 노정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솔루션은 경영학의 플랫폼인 경제학의 주류가 생태경제학으로 변모하는 일이며 이는 인류세의 압박 속에서 충분한 동인이 될 가능성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생태경제-생태경영학의 발전과 함께 국가와 기업의 생태학적 거버넌스 정립이 요청된다.

3)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사례

끝으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하에서 가장 생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자들이라고 하면 다국적 대기업들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 다국적 IT 대기업들은 기후 변화 관련해서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2020년경을 전후로 기후 변화 관련 자사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마존(Amazon)의 ‘Delivering Shipment Zero,’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Carbon Negative by 2030,’ 그리고 구글(Google)의 ‘Sustainable with Google’은 그 예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이윤 추구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감안할 때, 설명하기 어렵다.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은 단기적 이익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도 여러 불확실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¹⁹⁾ 다국적 IT 대기업들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수년전부터 대두되어 온 ESG의 요구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과 시민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온 시민운동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회세력과 다국적기업은 주요 정치적 행위자이며 따라서 상호간에 밀접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운동은 연결된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조직화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인류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행성적인 현실과 그 종말을 향한 경로를 예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또는 적어도 제대로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피상적이지만 대안의 방향을 상정해 보았다. 필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논문과 ESG의 계몽을 위한 강연 등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환경위기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어디까지나 신-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하에서 벌여온 활동이었고 ESG 등을 통해 지구시스템의 복원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인류세

19) 유인태, 김동우; “시민운동과 다국적 IT 대기업의 기후변화정책”, 『21세기 정치학회보 제32집 1호』, p39, 2022

담론은 환경위기를 넘어 종말론의 현실화에 급진적으로 부딪치게 하였고, 복원 불가능성에 관한 진실은 실존적인 종말론이 되었다. 갑자기 뭔가 기대를 갖고 추구해오다가 단절된 느낌을 갖게 되었고 세계관의 단절, 신앙관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듯했다. 바로 필자 자신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몇 가지 노력을 통해 얻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관의 새로운 정립으로 생각된다. 존 호트의 신-인간-우주의 삼중창조론은 기존 인간 중심의 결정론적 우주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주 자체가 창조적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종말론 신학의 발전과 정립이 기대된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변화하는데 꼭 필요한 생태경제학의 소개와 정립이다. 이는 경제경영 전공자뿐만 아니라 기업 CEO, 정부와 시민 모두가 참여자로 수행해야 할 경제 시스템과 거버넌스의 변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의 역할로써 시민 연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필자도 지난 9월에 “기후정의행진”에 보수적 입장에서 참가하였고 긍정적인 의미를 경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학과 일반 학문은 융합하여 성경 원전 본문의 텍스트를 천착하고 그 뜻과 원리를 밝혀 개인과 조직의 삶과 경영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일준, 실패의 정치신학: 『기후와 신학』
 Catherine Keller, 지구정치신학(박일준역), 대장간, 2020
 이광석, “인류세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테크노-생태학적 전망”, 『문화/과학』(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차태서(2021), “포스트 휴먼 시대 행성정치의 모색: 코로나19/기후변화 비상사태와 인류세의 정치, <https://doi.org/10.15235/jir.2021.12.24.4.31>
 박완석, “존 호트의 종말론에 함의된 과학. 생태 신학적 상상력 연구”, 『기독교철학 36호』, 2023
 조영탁, 『생태경제와 그린 뉴딜을 말하다』, 보고사, 2021
 김세중, 박의범, 홀란, “한국기업 CSR활동의 공유가치창출에 관한 연구”, 2012, 무역보험학회
 유인태, 김동우; “시민운동과 다국적 IT 대기업의 기후변화정책”, 『21세기 정치학회보 제32집 1호』, 2022
 K. Elliger, W. Rudolph와/과Gérard E. Weil,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electronicd.(Stuttgart:GermanBibleSociety, 2003)

Rick Brannan, 편집자, Lexham 히브리어 성경 어휘사전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0).

John Skinner 1851-1925,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Scribner, 1910)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 전자책.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1998)

(Appendix)

존 호트의 '예기적 독법'에 대한 보완

호트에 따르면 과학과 종교의 갈등과 충돌은 '과학'과 '종교'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학'과 '종교'를 이해하는 이념(ism)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단정한다. 실재에 대한 인식을 독점하려는 과학적 종교적 문자주의(literalism)가 두 영역의 충돌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호트는 이러한 과학계에 팽배한 입장을 '우주적 문자주의'로, 또한 종교계, 특히 기독교의 입장을 '성서적 문자주의(biblical literalism)'로 규정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주적 문자주의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들과 자연선택의 이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만족한 채 자연의 표면에만 집착"하는 유물론적 입장을 대변한다. 이와 반대로 성서적 문자주의란 "성서를 피상적으로 읽는데 그치는" 종교적 근본주의의 입장을 대표하는 입장이다.

과학주의와 유물론적 관점에 의거해서는 더 이상 우주 안에서 '진-선-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저 맹목적이며 무-목적적(aimless)이며 무-의미적(meaningless)인 물질적인 우주의 흐름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인간의 마음과 정신도 물질적인 상태에서 우연히 출현한 일종의 파생물, 부산물에 불과하다. 이를 기원학으로 설명하는데 **기원학(archaeonomy)**은 "자연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태초부터 확립된 거스를 수 없는 물리법칙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쉽게 말해 '기원학'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 초기에 형성된 물리적 법칙으로 인해 앞으로 전개될 우주의 모든 방향과 과정이 결정되었다. 한마디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발전할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결정론적이며 기계론적인 '기원학'은 우주 안의 '목적'과 '의미'와 '진-선-미' 등을 의미하는 '내면적 차원(inside story)'을 배제시키고 물리주의적 환원주의로 우주를 고정화시키는 독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종교는 유비의 독법으로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실재와 내면을 분리한다. 종교와 과학은 우주를 읽는 서로 다른 방법들이다. 종교는 서사적인 양식을 통해 우주에서 질적인 의미를 읽어내고, 과학은 자연을 양적으로 읽어내는 각자 독자적인 독법이다. 즉 전자가 우주의 내면적 차원의 해석에 집

중한다면, 후자는 우주의 외면적 차원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 둘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예기적 독법이다.** 이와 같이 과학과 종교는 상보적 역할로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은 우주의 표면적 이해를 증진시키며, 종교는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우주의 심층적 차원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기적 독법은 종교와 과학의 대화와 통합을 위한 모델이다. 종말론적 우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반영하며, 종말론적 신앙의 다른 표현이다.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인류세 시대 ESG경영의 신학적 전망	발표자	김세중
		논찬자 (소속)	박근호 (강남대/ 교수)

1. 논문의 의의

- 본 연구는 인류세 시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종말론적 신학의 이론적 기반에 기초하여 생태경제학적인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연구로 평가됨
- 특히, 창세기 1,2장의 창조 사건을 비인간을 포함하여 다시 검토하여, 신-인간-우주의 삼중창조로 재해석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인간중심 결정론적 우주관을 극복하는 창조적 진화라는 종말론적 우주관과 신학을 제시하고, 실천 대안으로서 자본주의 경제학의 거버넌스인 ESG경영의 차원을 넘어 생태경제학적 거버넌스로의 전환과 연계한 것은 신학과 경제학, 경영학, 생태학 등 다른 사회과학, 자연과학과의 지속적인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
-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고찰도 매우 의미 있음
-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 현상의 핵심 주체는 다국적기업. 전통적인 무역의 개념이 국경을 넘어서는 무역으로서, **국가간 무역(Inter-national Trade)**로 이해되었다면, 최근의 Global Trade의 핵심은 다국적기업들의 본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들에 의한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이 되고 있음. 이들 다국적기업들이 세계 전체를 단일 시장(single market)으로 간주하고, 글로벌효율성 추구를 위하여 비용 최적의 생산입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 인권의 파괴 등이 진행되고 있음

2. ESG경영에 대한 추가 이해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 미래세대의 몫을 생각하며 현 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핵심가치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묶어서 말하게 된 것이 ESG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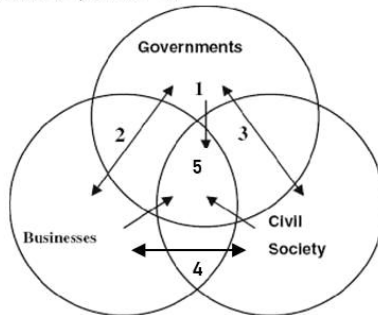


○ ESG 경영의 중요성:

- 소비자의 변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등장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도 영향
- ESG 관련 규제 대응이 기업 생존 문제와 직결: 파리기후협약에 의한 세계 주요국의 탄소 중립정책,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ESG경영에 소홀하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초래
- ESG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짐: 국가별 스튜어디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 도입으로 기관투자자 등이 ESG경영을 요구
- 글로벌 자산운용사, I/B, 신용평가사는 상품 개발 및 투자의사결정에 지속가능경영 평가 통합

○ CSR정책 수립의 주체와 역할

- 공공부문(Public sector, Government):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법률을 통과시키며 그 법률을 집행하는 주체
- 시장부문(The Market sector, Business): 경쟁과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투입을 활용해 사회구성원에게 산출물을 할당하는 곳
- 시민사회(Civil Society): CSR의 실천 및 공공과 시장부문의 변화 압력.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 NGO 등



1. CSR in governments
2. CSR i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s
3. CSR in government-society relationships
4. CSR in business-society relationships
5. CSR in government-business-society relationships

- ESG경영의 세 주체인 정부, 시장, 시민사회간 역할과 관계는 유럽대륙국가, 앵글로 색슨 배경 국가, 아시아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함
- ESG경영,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시민 사회의 역할이 미약하므로,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럽대륙의 국가 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교회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적극 발휘할 필요가 있음

지역	정부, 시장, 시민사회간 역할과 관계
앵글로 색슨적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분리 • 독립적, 경쟁적, 적대적 • 사회적 목표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협력 아닌 경쟁이 요구
아시아적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시장 간 긴밀한 협력 체제 • 시민 사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
유럽 대륙적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시장, 시민사회 세 주체 간 협력 • 공공정책 수립과정은 세 주체 간 공감대 생성에 기반

3. ' 창조적 진화 ' 에 대한 질문과 제안

- 본 논문의 '창조적 진화'는 '진화론적 유신론'과 동일한가? 차이가 있는가?
- 진화론적 유신론에 근거한 종말론적 신학은 진화를 오히려 기독교의 신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화과학이 우주와 생명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틀이 된 시대에 이를 성찰하고 반영하려는 신학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창조적 진화'가 '진화론적 유신론'과 동일하다면, 종교와 과학 간의 대화와 상호적 접근 자체는 바람직할지라도, 창조적진화라는 종말론적 우주관적 주장은 기원에 대한 진화론 가설을 믿음직한 과학으로 정당화 시키는 일에 조력하는 것이 아닌가?
- 창조적 진화의 핵심적 기반 이론인 빅뱅이론은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대신할 수 있는 절대적 이론인가?
 - 빅뱅이론이 우주의 확장 뿐 만 아니라 여러 우주의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는 있으나, 빅뱅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많은 현상들이 존재함
 - 근본적으로 빅뱅이론에서 전제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초기 물질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물질이 무슨 힘으로 폭발하였는지, 순간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한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 광속의 몇 천배 이상으로 공간이 어떻게 팽창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우연한 빅뱅으로 어떻게 이런 질서정연한 우주와 거대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가?
 - 관찰되는 별, 블랙홀 등 모든 것들을 합쳐도 설명되지 않는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인가?

4.

- 모든 자연 과학은 물질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주의 방법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 데, 과학이 관찰할 수도 실험할 수도 없는 기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 진화론은 기원의 문제를 다루는 과학으로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한 학문.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우주와 생명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틀로 전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진화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것 아닌가?
 -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의 자연주의적 방법론은 수용하고, 자연주의적 철학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화론과 과학을 동일시하는 비약
- 초월적 창조를 믿는 것은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목적, 곧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의 결과는 완벽한 질서였으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질서가 손상되었고 지금도 손상되고 있으므로, 그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존하는 일에 과학과 종말론적 신학의 상호적 접근을 통한 이론적 기반의 확립, 그리고 실천적 대안으로서 ESG경영에 기독교인들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